

국제백진분류법의 기본구조

Gener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Centesimal Classification (ICC)

정 필 모(Jeong Pil-Mo)*

<목 차>

- | | |
|----------------|----------------------------|
| 1. 문제의 제기 및 제언 | 2.3. 주류군과 주류의 전개 |
| 2. ICC의 기본설계 | 2.4. 보조표(Auxiliary tables) |
| 2.1. 분류기호 | 3. 결 언 |
| 2.2. 주류의 수 | |

초 록

이 글에서는 새로이 설계된 국제백진분류법의 주류와 9개 보조표를 포함한 일반적인 개요와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제어 : 국제백진분류표, 주류, 보조표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gener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ICC(International Centesimal Classification) including main classes and auxiliary tables - form divisions; chronological divisions; geographical divisions; language divisions;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divisions of individual religion; divisions of individual language; subdivisions for individual literatures; and groups of persons.

Key Words : ICC(International Centesimal Classification), Main classes, Auxiliary Tables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 접수일 : 2002. 2. 7 · 최초심사일 : 2002. 3. 7 · 최종심사일 : 2002. 3. 14

1. 문제의 제기 및 제언

DDC는 1876년에 Melvil Dewey에 의해서 창안 된 것으로 현대의 문헌분류법의 효시인 동시에 십진식분류법의 창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DDC는 ‘십진식전개’라고 하는 독창성과 이에 따른 분류작업의 편리성 및 실용성 때문에 그후 널리 보급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있는 분류법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DDC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DDC는 신학대학인 Amherst대학도서관의 장서를 분류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으로, 그 주류의 배열은 전반적인 면에서 인문학 위주로, 종교의 전개는 기독교 위주로, 그리고 어학 문학 철학 등은 미국과 서구 위주로 전개되어 있다. DDC는 그후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 따라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개정되어 1996년 현재 21 개정판이 발행되었으나 개정판이 발행될 때마다 그 개정의 내용은 주로 세목의 세분전개와 특정한 몇 개 강목의 개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21판에서도 초기 판본의 류강목의 기본골격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서구문화권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상에서 말한 주제분야를 각자 자기나라에 부합하도록 새로이 전개해서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국제적 통용성과 보편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DDC는 19세기 말기의 학문체계를 기초로 하여 전개된 것으로 초판이 발행된 지 120여 년이나 경과하여 그 동안 학문의 발전과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현대의 학문체계와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주요한 몇 가지 예를 들면; ‘100 철학류(Philosophy)’ 안에 현재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속한다고 인정되고 있는 심리학(Psychology)(150)이 배정되어 있고, ‘600 기술과학(Technology)’ 안에 사회과학에 속하는 경영학(Management)(658)과 ‘가정학(Home economics)(640)’이 배정되어 있다. 또한 근년에 삽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000 총류(Generalities)’ 안에 인문학(Humanities) (001.3)이 배정되어 있다.

셋째 현대의 주요분류법의 주류의 수를 살펴보면 DDC에서는 처음(1876)에 지식전반을 ‘0’부터 ‘9’까지 10개의 주류로 구분하였고, 미국의회도서관의 LCC에서는 최초(1904)에 지식전반을 A부터 Z까지(I O W X Y는 제외하고) 21개의 주류로 구분하였으며, 1933년에 초판이 발행된 Colon분류법(CC)은 최초에 27개의 주류로 구분하였고, 1936년에 편찬된 Bliss의 서지분류법(Bibliographic Classification=BC)에서는 이른바 선행류(Anterior class)를 1부터 9까지 전개하고 다음에 주류(Main class)를 A부터 Z까지 26개, 모두 36개로 전개하였다. 또한 LCC는 그후 B의 철학과 종교, H의 사회과학, P의 어학과 문학, Q의 과학, T의 기술과학분야에서 각각 하위류(subclass)라는 것이 70여 개로 증가하였으니 이것도 주류의 증가라고 볼 수 있고, CC도 그후 1960년에 개정된 제6판에서는 주류가 47개로 증가하고, 1973년에 Neelameghan

등에 의해서 제시된 제7판 준비판의 주류는 82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학문의 발전과 분화에 따라서 주류의 수가 점차 증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DDC는 초판이 발행된 지 1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10개의 주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주류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하다.

넷째 Dewey의 십진분류법은 학문이나 주제가 세분되지 않았던 19세기 말기나 20세기 초기에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후 학문이나 문화의 가속적인 발전과 분화로 인해서 주제간의 상하계위(上下階位)를 기호로써 나타내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계열이나 동일한 수준의 세분된 주제를 100가지 이상으로 구분해야 할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십진식기호로 나타내는 경우 9개의 한정된 기수기호(基數記號)로써는 다만 세분되는 항목들이 균등하게 뚜렷한 계층구조를 가지지 않는 한, 전개를 여러번 되풀이해야만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DDC21의 Table 6 Language의 경우와 같이 32가지의 세계의 주요한 언어를 구분하는데 10진식전개를 5번이나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초로 전개된 기호는 1자리 수이지만 마지막의 5번째로 전개된 기호는 5자리수가 된다. 이와 같이 전개를 되풀이하면 할 수록 끝 부분에서 전개되는 기호의 자릿수는 점차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DDC에 있어서는 보조기호 등의 조합에 의해서 구성되는 분류기호는 25자리도 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DDC는 십진식전개를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되므로 단순한 아라비아숫자기호가 오히려 복잡하게 길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십진식분류법은 이제 그 전개방식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DDC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헌분류법을 편찬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그 완성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사계의 전문가들의 평가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우선 요약판을 하나의 시안으로 제시하고 그 기본구조를 여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2. ICC의 기본설계

2.1. 분류기호

도서관에서의 분류기호는 분류기호 자체에 의해서 문헌의 내용이 잘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보다도 각각의 분류기호에 의해서 문헌이 서가 상에 체계적으로 배열되고, 목록

이나 서지에 배열되도록 각각의 순서를 결정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분류기호는 간단명료하고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배열순서상의 개념이 명확해야 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분류기호는 역시 숫자기호가 가장 좋고, 더구나 국제적인 통용성을 고려한다면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ICC에서도 DDC의 경우처럼 아라비아숫자만을 분류기호로 삼는다.

2.2. 주류의 수

현대의 주요분류법을 분석한바 주류의 수는 84개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¹⁾ 그러나 현대의 주요분류법에서는 모두 법률분야(Law)를 하나의 주류로 전개하고 있는데 법률분야는 의약학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주제분야가 광범위하므로 법률분야를 하나의 주류로 전개하기에는 다른 주류들에 비하여 너무나 방대하다. 그러므로 법률분야를 하나의 주류군으로 하고 이를 9개의 주류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ICC에서는 우선 잠정적으로 주류군과 주류를 모두 합해서 90개로 설정하고자 한다.

2.3. 주류군과 주류의 전개

이상에서 말한 주류군과 주류들을 만약 DDC의 경우처럼 동일한 수준에서 숫자기호로 십진식으로 전개하자면 9번 이상 전개해야하고 끝 부분에 전개되는 숫자는 9자리숫자나 된다. 그러나 이를 처음부터 2자리숫자 즉 00부터 99까지 숫자순서로 전개한다면 모두 2자리숫자로 단 한번에 전개될 수 있고, 기호수도 10개나 남는다. 이러한 현상은 주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주류 내에서의 각각의 강이나 목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한 주제 아래에서 세분되는 항목이 10가지 미만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모두 20이나 30가지 이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100가지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대에는 학문이나 지식의 상 하위 계층구조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현재 DDC의 경우처럼 활자의 크기나 분류기호로 나타내는 것은 일반도서관이용자들에게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분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다만 상위의 항목은 앞자리로 당기고, 하위의 항목은 뒤로 미루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ICC에서는 우선 전반적인 정보 및 지식분야를 가장 광범위한 수준에서 다음과

1) 鄭駉謨, 『國際百進分類法研究』. 서울 : 중앙대학교출판부, 1995. p. 16

같이 8개의 주류군(group of classes)으로 구분한다.

- 학제적주류군(Interdisciplinary classes)
- 인문학주류군(Humanities classes)
- 사회과학주류군(Social sciences classes)
- 법률주류군(Law classes)
- 예술주류군(Arts classes)
- 자연과학주류군(Natural sciences classes)
- 의약학주류군(Medical science classes)
- 기술과학주류군(Technology classes)

다음으로 이들 주류군들은 각각 최소한 4개 이상의 주류(classes)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들 주류군과 주류들은 상 하위 계층을 기호의 자리수로 구분하지 않고, 다만 이들을 활자의 크기로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수준에서 배열하여 다음과 같이 00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2자리숫자로 기호를 매긴다.

Main Classes

- 00 Interdisciplinary classes**
- 01 Generalities
- 02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03 Computer science
- 04 Journalism & Museology
- 05 *****
- 06 Humanities classes**
- 07 Philosophy
- 08 Religion
- 09 Language and linguistics
- 10 Literature and rhetoric
- 11 *****
- 12 Social sciences classes**
- 13 Geography
- 14 History
- 15 Sociology and anthropology
- 16 Social problems & services
- 17 Psychology
- 18 Education
- 19 Collections of general statistics
- 20 Political science
- 21 Economics
- 22 *****
- 23 Accounting
- 24 General management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3권 제 1호)

- 25 Management and auxiliary services
- 26 Home economics & family living
- 27 Public administration
- 28 Military science
- 29 Commerce & communications
- 30 Transportation
- 31 Customs etiquette & folklore
- 32 *****
- 33 Law classes**
- 34 International law
- 35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 36 Military, defense, public property, public finance, tax, trade, industrial law
- 37 Labor, social service, education, cultural law
- 38 Criminal law
- 39 Private law
- 40 Civil procedure and courts
- 41 Statutes, regulations, cases
- 42 Law of specific jurisdictions, areas, socioeconomic regions
- 43 *****
- 44 Arts Fine & decorative arts classes**
- 45 Civic and landscape arts
- 46 Architecture (Building arts)
- 47 Sculpture (Plastic arts)
- 48 Drawing & Decorative arts
- 49 Painting & Paintings
- 50 Graphic arts Printmaking & printing
- 51 Photography & photographs
- 52 Music
- 53 Recreational & performing arts
- 54 Sports
- 55 *****
- 56 Natural science classes**
- 57 Mathematics
- 58 Astronomy and allied sciences
- 59 Physics
- 60 Chemistry & allied sciences
- 61 Earth sciences
- 62 Paleontology (Paleozoology)
- 63 Life sciences Biology
- 64 Botany (Plants)
- 65 Zoology
- 66 *****
- 67 Medical science classes**
- 68 Human physiology
- 69 Diseases
- 70 Miscellaneous branches of medicine Surgery
- 71 Other branches of medicine Gynecology and obstetrics

- 72 Oriental medicine
- 73 Pharmacy
- 74 Promotion of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 75 *****
- 76 Technology classes**
- 77 Agriculture and related technologies
- 78 Animal husbandry
- 79 Food & beverage technology
- 80 Engineering and allied operations
- 81 Applied physics
- 82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 83 Computer engineering
- 84 Heat engineering & prime movers
- 85 Machine engineering
- 86 Mining and related operations
- 87 Military and nautical engineering
- 88 *****
- 89 Civil engineering
- 90 Engineering of railroads and roads
- 91 Hydraulic engineering
- 92 Environmental protection engineering
- 93 Other branches of engineering
- 94 Chemical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ologies
- 95 Other branches of technologies
- 96 Manufacturing
- 97 Manufacture of products for specific uses
- 98 Buildings
- 99 *****

다음은 이상의 각 주류 아래에서도 역시 위와 같이 백진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강(divisions)으로 구분하는데 그러면 분류기호는 4자릿수가 된다. 또한 여기에서 세분전개가 필요하면 반드시 4자릿수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제3차도 백진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만 주제분야에 따라 전개해야할 항목수가 10개 미만이면 필요에 따라 십진식으로 전개한다.

한편 장래의 새로운 주제삽입에 대비하여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주류군과 주류군 사이에는 하나의 주류번호를 빈자리로 남겨두고, 사회과학과 기술과학의 주류군에서는 각각 중간 위치에도 하나의 빈자리를 남겨둔다. 이 두 가지 주류군은 앞으로 주류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주류군과 주류들을 전개하면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주류의 삽입이 비교적 용이하고, 또한 이미 전개된 주류에서도 여유공간이 많으므로 주류의 확장이나 세분전개도 용이할 것이며, 기호의 자릿수도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2.4. 보조표(Auxiliary tables)

ICC에서는 이미 DDC에서 마련된 7가지의 보조표 이외에 2개지를 더해서 9가지의 보조표를 마련하였다. 이들 중에서 획기적인 것은 형식구분표(Form divisions), 연대구분표(Chronological divisions), 종교공통구분표(Divisions of individual religions)이다. 기타의 6가지 보조표는 DDC의 그것들을 다만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기호를 백진식으로 전개한 것이다. 이들에 대하여 각각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4.1. 형식구분표(Form divisions)

형식구분표는 LCC에서 적용하고 있는 "Martel's seven points"의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종래의 일반형식구분에 수용되었던 사항들을 내적형식에 속하는 사항과, 외적형식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특수형식에 속하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다음과 같이 각각 별도로 전개하였다.

A. 내적형식구분(Internal form divisions)은 00부터 09까지 10개의 항목을 2자리수로 숫자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이들을 거의 모든 주류의 첫머리에 전개하도록 하였다.

B. 외적형식구분(External form divisions)의 배열은 대체로 이용의 편의에 따라; 첫째 일반서고에 배치될 자료, 둘째 참고열람실에 배치될 자료, 셋째 정기간행물 열람실에 배치될 자료의 순서로 배열하고, (11)부터 (36)까지 24개 항목(20과 30은 공백으로 남기고)을 역시 숫자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여기에서 숫자기호를 원괄호(())안에 넣은 것은 다른 분류기호와 구별하기 위해서다. 이 기호는 분류번호의 맨 마지막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C. 특수형식기호(Special form divisions)는 일반서고나 참고도서실 이외의 다른 곳에 별치하게 되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종래의 별치기호라고 말할 수 있다. 기호의 첫머리에 S자를 붙여 역시 2자리수로 11부터 29까지 번호를 매기고, 여기에서 기호 S20은 의도적으로 빈자리로 남겨두었다. 또한 이 특수형식기호들은 분류번호의 윗자리에 별행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들 세 가지 기호들을 각각 다르게 하였으므로 이들 기호간의 혼돈이 없을 것이다.

2.4.2. 연대구분표(Table of chronological divisions)

연대구분표는 서기연대를 기초로 해서 이들을 각각의 연대에 대응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호를 배정해서, 조기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표를 참조하지 않고서도 기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BC 5000년부터 BC 1년까지는 1000년 단위로, AD 1년부터 1900년까지는 100년 단위로, 1901년부터 2210년까지는 10년 단위로 하여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 2) 고대, 중세, 현대 그리고 1901년 이후의 20. 21. 22. 23세기 등은 이들 연대와 병행해서 그에 관련된 적절한 위치에 배정한다.
- 3) 이들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호를 배정한다.
 - a. BC 5000년부터 BC 1년까지는 연도수의 끝의 세 자리의 영(000)은 삭제하고 첫 자리 숫자 앞에 마이너스기호와 영(-0)을 붙여서 이를 기호로 삼는다. 이것은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3자리수의 기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b. AD 1년부터 AD 1900년까지는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 다음에 C자를 붙인다. 그러나 다만 1세기부터 9세기까지는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 앞에 영(0)을 붙인다.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3자리숫의 기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c. AD 1901년부터 2210년까지는 연도수의 끝자리를 제외하고 천 자리부터 십 자리 숫자까지만 기호로 삼는다. 다만 20세기 이후도 필요에 따라서 세기번호로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 다음에 C자를 붙여서 20c, 21c, 22c, 23c로 표시하여 해당연대 사이에 삽입한다.(Table 2; CD참조)

*연대기호를 매기는 방법

도서관의 실무에 있어서 연대기호를 매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BC 연대 중에서 100년이나 10년 단위의 연대는 그에 해당하는 1000년 단위 연대기호를 매긴다.
2. 연대기호표에 나타난 고대, 중세, 근세 이외에 2세기 이상에 걸친 시대는 그 최상의 100년에 해당하는 기호를 적용한다.
3. 하나의 세기번호 내의 기간은 이에 해당하는 세기번호를 적용하고, 20세기 이후의 기간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은 그 최상의 10년 단위(decade) 번호를 적용한다.

예: 신라시대 (57 BC-935).....-01
 고려시대 (918-1392).....10c
 조선시대 (1392-1910).....14c
 일제시대 (1910-1945).....191
 Elizabethan period (1558-1625)....16c
 Victorian period (1837-1900).....19c

4. 기호의 배열순서에 있어서 숫자는 연대기호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정수에 의한 순차에 따른다. 다만 세기를 나타내는 “c”는 “0”과 같은 자리값을 가지되 “0”보다 앞 세워서 배열한다.
5. 특히 연속간행물이나 기타의 문헌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서역연도 수를 그대로 기호로 삼는다.
6. 이 연대구분기호는 분류번호 밑에 행을 달리하여 기입한다. 그 이유는 학문이나 주제의 분류에 있어서 시대표시는 그것이 본질적이거나 주가 되는 요인이 아니라 부차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명확히 하고자하는데 있다.

2.4.3. 지역구분표 (Geographical divisions)

지역구분표는 DDC 21의 Table 2를 기초자료로 하여 전개하되, 전반적인 지역구분의 균형을 유지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Europe, Asia, Africa를 각각 2개지역으로 구분하고, North America, South America, Other parts of world는 각각 DDC에서의 배분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배정하고, 각 지역번호는 10을 단위로 하여 00부터 90까지 배정한다.

00. Areas, regions in general
10. Western Europe
20. Eastern Europe
30. North East Asia
40. Southeast Asia
50. Northern Africa
60. Southern Africa
70. North America
80. South America
90. Other parts of world

둘째로 이들 각각의 지역을 DD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국가단위를 고려하여 십진식으로 전개하되 각 대륙 내에서의 국가별 배열순서는 Ranganathan이 말하는 이른바 유용한 순서의 원칙 중 공간적인접순(空間的隣接順)의 원칙²⁾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 경우도 있다.

2)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 183

셋째로 이상과 같이 전개된 지역구분표를 약표로 삼고, 여기에서 다시 이들 각각의 지역을 시종일관 백진식, 즉 2자릿수로 전개하여, 결국 모두 4자릿수가 되도록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ICC의 지역구분표 중 약표는 시종일관 2자릿수로 전개한 것으로 주로 국가를 단위로 한 국가구분표라고 말할 수 있고, 세분표는 시종일관 4자릿수로 전개한 것으로 각 국가별 지역구분표라고 말할 수 있다.

2.4.4. 언어구분표 (Language divisions)

DDC(21)와 UDC 및 CC 의 언어구분표를 분석한 바 세계의 주요한 언어는 100종 미만이고, 이들 언어에서 파생되었거나 이들 언어들 간의 상호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언어는 대략 300여종이 된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기호매김은 우선 01에는 자국어(Native language), 02에는 최혜국어(Favored language)를 배정하고, 다음의 98종의 주요한 언어를 03에서부터 99까지 2자리수로 순차적으로 기호를 매기고, 두 번째로 이들 각각의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을 1부터 9까지 한자리수의 기호를 필요한 수만큼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어떠한 파생어라도 언어구분기호는 모두 3자리 수를 넘지 않는다.

여기에서 01에 자국어를 배정한 것은 특히 3자리 수에 배정된 군소국가들이나 2자리 수에 배정된 나라도 자국어를 우선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02에 Favored language를 배정한 것도 역시 자기나라에 가장 친근한 언어를 우선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2.4.5. 인종, 민족, 국가군 구분표(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인종, 민족, 국가군 구분표는 DDC21에 전개된 Table 5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기호의 자릿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3자릿수로 전개하고, 상 하위 계층구조는 활자의 크기나 굵기 등으로 표시했을 뿐이다.

2.4.6. 종교공통구분표 (Divisions of Individual Religion)

종교공통구분은 현대의 주요한 종교에 관련된 자료를 분류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이것은 변우열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³⁾ 중의 일부에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변교수가 이 종교공통구분표를 부분적으로 십진식으로 전개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시종일관 백진식, 즉 2자릿수로 한 번에 전개한 것이다. 그리하여 ICC

3) 변우열, 『종교류의 새로운 분류법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3.

에서는 이를 하나의 예로서 불교(Buddhism)에만 적용하고 다른 종교자료의 분류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일반적인 공통성 이외에 특이한 면이 많고, 기독교의 자료에 대해서는 DDC에서 이미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ICC에서는 DDC를 토대로 이를 약간 축약해서 별도로 백진식으로 전개하였다.

2.4.7. 개별언어 공통구분표(Divisions of individual language=DIL)

DDC에는 언어공통구분표가 있는데 영어를 비롯한 서구의 주요한 언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각각 본표로 제시하고, 또 여기에서 각각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세분 전개하고 있다.

1. Writing system, phonology, phonetics of the standard form of the language
2. Etymology and dictionaries of the standard form of the language
3. Grammar of the standard form of the language
4. Historical and geographic variations, modern nongeographic variations
5. Standard the language usage
6. Other related languages

이상의 사항들은 모두가 이미 언어공통구분표에 포함된 사항들인데 다만 각각의 국어에 따라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다를 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Historical and geographic variations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Germanic languages에 있어서 다른 언어에는 없는 Standard subdivisions와 Special topics라는 세부사항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 세부사항을 모두 언어공통구분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사항들이 필요한 국어에서는 이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국어에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Historical and geographic variations는 ICC에서는 연대구분표(CD)와 지역구분표(GD)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ICC의 개별언어공통구분표(DIL)에서는 이상에서 말한 사항들을 모두 포괄해서 전반적인 항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00부터 43까지(끝 숫자 5와 0이 붙는 숫자는 유보하고) 전개하였다. 한편 DIL은 Table 4; Language Divisions에서 전개된 주요언어(2자리수를 가지는 99종의 언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타의 군소언어는 세분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ICC에서는 개별언어공통구분표 만으로 세계의 주요한 언어들을 모두 세분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어에만 하나의 예로써 전개하였다.

2.4.8. 개별문학 세분표 (Subdivisions for individual literatures)

개별문학세분표는 DDC 21의 Table 3 (Table 3-A, 3-B, 3-C)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이를 백진식으로 전개하고, 다만 Table 3-C에서 예술분야(700.4)와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분야(791.4)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술분야와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분야의 본표(Schedule)에서 직접 전개하였다.

2.4.9. 인물구분표(Groups of Persons)

인물구분표는 DDC 21의 Table 7 (Groups of Persons)에 전개된 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되 전반적인 항목의 배열순서는 대체로 ICC의 주류의 배열순서에 따랐다. 그리고 전개방법은 백진식전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전체적인 항목수가 400항목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3자릿수로 전개하였다.

3. 결 언

이 분류표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모두 DDC 21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만 전반적인 항목의 배열체계와 순서 및 기호매김을 달리 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판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ICC는 문헌분류법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DDC의 편찬위원회와 OCLC에 의해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판권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만약 필자가 기대하는 대로 이 ICC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완성과 발전을 위하여 이미 마련된 ICC의 전반적인 세분전개표의 시안도 기꺼이 제시할 수 있다.